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혜경¹ · 이향련² · 이지아³

¹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연구원, ²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³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Predictors of Facility Adaptat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Lee, Hyekyung¹ · Lee, Hyang-Yeon² · Lee, Jia³

¹Researche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self-efficiency, nursing home care quality and nursing home adaptation,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home adaptat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Methods:** The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8 older adults without dementia by interview from six nursing homes in three cities from February 1, 2008 to February 28, 2008. **Results:** Levels of nursing home adaptation in older adult residents were different by type of decision maker of nursing home admission, reason of nursing home admission, type of payment and length of nursing home stay. The nursing home adapta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efficiency and nursing home care quality. The strongest predictor of nursing home adaptation was type of decision maker of nursing home admission followed by the self-efficiency.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that during the decision making period of nursing home admission, older adults should have enough time and careful considerations of their families to decide by themselves in positive ways. Nursing home staff should be able to identify reasons of nursing home admission and demands or expectations of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Nursing home, Adaptation, Factor, Older adul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건강기술의 발전과 보건위생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사망률이 저하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4,810천 명으로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OECD 국가 중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수가 2005년에는 583개, 2006년에는 898개, 2007년에는 1,186개로 증가하였고(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볼 때 더 많은 시설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 인력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거주지 이동은 사회 심리적 안녕과 생존에

주요어 : 노인요양시설, 적응, 요인, 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Jia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894 Fax: 82-2-961-9398 E-mail: leejia@khu.ac.kr

투고일 : 2008년 9월 23일 심사외뢰일 : 2008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월 11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동은 친숙한 근거지를 떠나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및 감정적인 애착을 단절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이르러 시설에의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의 거주지 이동이 시설에의 입소인 경우에는 “이동쇼크(relocation shock)”, “이동스트레스증후군(relocation stress syndrome)”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불려지고 있다(Laughline, Parsons, Kosloski, & Bergman-Evans, 2007). 더욱이 시설에의 입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응이 힘들고, 사망률도 높아진다(Reinardy, 1995). 적응이 되지 않은 노인들은 불안, 혼돈, 불면, 식욕저하, 우울, 외로움, 무기력과 눈물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Haight, 1995; Lee, 2002),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시도나 실제 자살과 같은 부적응 양상을 유발할 수 있다(Kaisik & Ceslowitz, 1996; Lee, 2002).

Brooke (1989)는 노인이 새로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관계를 정립하여 안정된 시기에 접어드는 데에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적응의 4단계를 소개하였다. 첫 단계는 감정상태의 변화단계(0-2개월), 두 번째 단계는 문제해결단계(2-3개월),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개발단계(3-4개월), 네 번째 단계는 안정된 상태관계단계(4-6개월)를 거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시설로의 입소는 노인의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도 큰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노인의 모든 행동 패턴에 재적응을 요구하게 되며 노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Reinardy, 1995). 따라서 노인의 시설 입소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입소노인의 시설적응 상태를 파악하고 부적응의 위험성을 가진 노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응을 유도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적응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Jeong, 2006; Lee, 2002; Park, 2006)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시설적응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생활만족도(Mosher-Ashley & Lemay, 2001; Shin, 2002), 삶의 질(Harrington et al., 1999) 등의 시설적응 관련변수들로 측정하였다. 이들 연구를 보면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및 시설적응은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높을수록 높았고(Johnson, Stone, Altmaier, & Berdahl, 1998; Lee, S. K., 2007), 시설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불편감이 높을수록 낮았다(Mosher-Ashley & Lemay, 2001). 또한 Lee (2002)의 질적 연구에서 시설 노인의 적응과

정 중 거부감과 관련 있는 변수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의 심각성, 입소경위와 가족의 지지가 파악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신체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효능감,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설서비스의 질, 기타 비용부담 및 시설입소결정 등이 시설입소 후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시설적응 정도를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등으로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Lee, G. E. (2007)의 시설 노인의 적응척도를 이용하여 노인의 시설에 대한 적응정도를 직접 측정하여 현재 입소노인의 적응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적응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 및 적응 정도와 시설서비스의 질을 파악한다.

둘째, 시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적응정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일반적 특성이 적응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일반적인 특성이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적응 정도와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4개의 무료 시설과 2개의 유료시설 총 6개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면담에 응한 160명의 노인 중 응답을 기피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응답을 한 12명을 제외한 총 14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Erdfelder, Faul, & Buchner, 1996)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 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정도 수준인 .15, 독립변수(연령, 건강상태, 시설비용 유무, 입소기간, 입소결정,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8개로 하여 136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둘째, Brooke (1989)의 연구를 근거로 한 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된 노인

셋째,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넷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면담에 응답이 가능한 노인

다섯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노인

3. 연구 도구

1)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Barthel Index (Mahoney & Barthel, 1965)를 Choi (2002)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식사하기, 침대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얼굴과 손 씻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집안에서 왔다갔다 하기, 총계 오르내리기, 옷 입고 벗기, 소변 조절하기, 대변 조절하기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hoi (2002)는 Barthel Index의 10점 척도를 Likert 5점 척도인 1점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에서 5점 '혼자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노인시설 거주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 (1982)에 의해 개발된 자기효능감 도구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Oh (1993)가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행동의 시작 2문항, 노력 6문항,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 5문항, 성취 2문항, 확신 2문항 등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정도에 따라 '확실히 그렇다'에 5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을 주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며, 긍정적인 6문항을 제외한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으로 환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Oh (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 시설서비스의 질

시설서비스의 질은 Rantz 등(2006)의 Observation Indicators of Nursing Home Care Quality Instrument (OIQ)를 Lee (2008)가 한국의 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형 노인요양시설 질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6개의 시설을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의사소통 6문항, 건강관리 6문항, 외모관리 2문항, 약취관리 2문항, 기본적인 환경 5문항, 공간이용정도 4문항, 안락한 환경 5문항으로 구성된 총 7개 영역의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별로 '정말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 5점을 주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며, 부정적인 2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서비스의 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08)의 한국 노인요양시설 98개를 관찰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4) 시설 적응정도

시설 적응정도는 Lee, G. E. (2007)에 의해 개발된 노인요양시설의 적응척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요인별로 거주지 이전증상 8문항, 친구 만들기 4문항, 새로운 거주지 수용 6문항, 집단생활의 어려움 3문항, 존재 가치 지니기 2문항 등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정도에 따라 '정말 그렇다'에 5점, '정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긍정적인 9문항을 제외한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적응 척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Lee, G. E., 200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연구위원회에서 노인대상을 위한 자료 수집의 윤리적 측면의 허락을 얻은 후 시작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시작 전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책임자에게 직접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3개 도시에 위치한 6개의 요양시설에 입소한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 선정 기준에 맞는 노인을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연구 대상이 노인이므로 면담 동안 조

금이라도 피로를 호소하거나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여 면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시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 적응정도 및 시설서비스의 질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고, 시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는 t-test/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

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시설 적응정도와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일반적인 특성이 시설 적응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1. 시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시설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12명(75.7%)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75-79세가 51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70-84세가 120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Home Residents (N=148)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6	24.3
	Female	112	75.7
Age (yr)	65-69	9	6.1
	70-74	35	23.6
	75-79	51	34.5
	80-84	34	23.0
	85-89	16	10.8
	≥90	3	2.0
Education	≤6th grade	112	75.7
	7-12th grade	29	19.6
	≥College	7	4.7
Religion	Protestant	98	66.2
	Roman catholic	21	14.2
	Buddhism	4	2.7
	No	25	16.9
Marital status	Married	9	6.1
	Widowed/divorced	139	93.9
	Caregivers	Family	59
	Friends	5	3.4
	Others	84	56.8
Perceived health	Good	30	20.3
	Moderate	57	38.5
	Poor	61	41.2
Decision maker of admission	Self	64	43.2
	Children	63	42.6
	Friends	21	14.2
Reason of nursing home admission	For comfortable life	26	17.6
	No caregivers	60	40.5
	Too sick from disease	51	34.5
	Conflict with children	11	7.4
Type of payment	Free	101	68.2
	Private	47	31.8
Length of stay (yr)	<1	25	16.9
	1-2.9	66	44.6
	3-4.9	37	25.0
	≥5	20	13.5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Variables	Items	M	SD
Activities of daily living (n=148)	1. Feeding	4.45	0.68
	2. Grooming	4.42	0.82
	3. Bowel control	4.39	0.94
	4. Dressing	4.32	0.89
	5. Transfer	4.29	0.97
	6. Toileting	4.28	0.98
	7. Bladder control	4.24	0.93
	8. Mobility	4.05	1.07
	9. Bathing	2.91	1.45
	10. Stairs	2.61	1.32
Total (10 items)		3.99	0.83
Self-efficacy (n=148)	1. Achievement (2 items)	3.44	0.91
	2. Endeavor (6 items)	3.20	0.86
	3. Confidence (2 items)	3.19	0.88
	4. Will to continue (5 items)	3.18	0.85
	5. Action (2 items)	3.12	0.87
Total (17 items)		3.21	0.80
Adaptation (n=148)	1. Difficulty in group life (3 items)	3.86	0.77
	2. Acceptance of new residence (6 items)	3.70	1.13
	3. Making friends (4 items)	3.42	0.62
	4. Relocation distress symptom (8 items)	3.29	0.94
	5. Having self-worth (2 items)	3.14	0.82
Total (23 items)		3.48	0.78
Nursing home care quality (n=6)	1. Communication (6 items)	4.19	0.61
	2. Care delivery (6 items)	3.61	0.61
	3. Grooming (2 items)	4.17	0.61
	4. Odor (2 items)	3.50	0.84
	5. Environment-basics (5 items)	3.80	0.51
	6. Environment-access (4 items)	2.63	0.96
	7. Environment-homelike (5 items)	3.53	0.81
Total (30 items)		3.64	0.59

(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112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활동은 개신교가 98명(66.2%)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는 사별 또는 이혼한 상태가 139명(9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시설관계자 등이 84명(5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족이 59명(39.9%)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61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57명(38.5%),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30명(20.3%)이었다. 시설 입소결정은 본인이 결정한 경우가 64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며느리가 63명(42.6%), 친인척이 21명(14.2%)으로 나타났다. 입소 동기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60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가 51명(34.5%), '안락한 노후를 위해'가 26명(17.6%), '자녀와의 갈등 및 기타'가 11명(7.4%)으로 나타났다. 시설비용은 무료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101명(68.2%)으로 많았으며, 입소 기간은 1-5년 미만인 103명(6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 적응 정도 및 시설서비스의 질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 적응정도 및 시설서비스의 질을 확인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이 평균 3.99 ± 0.83 으로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조금 힘이 든다”에 주로 분포되었고, 문항별 평균은 식사하기(4.45 ± 0.68)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목욕하기(2.91 ± 1.45)와 총계 오르내리기(2.61 ± 1.32)가 힘든 활동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1 ± 0.80 으로 “보통이다”에 분포되었으며, 요인별로 보면 성취(3.44 ± 0.91)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 노인의 적응 정도는 평균이 3.48 ± 0.78 로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분포 되었으며, 요인별 평균은 집단생활의 어려움(3.86 ± 0.7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6개소의 시설서비스의 질은 평균이 3.64 ± 0.59 로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점수분포를 보였다. 문항별 평균 중 의사소통이 4.19 ± 0.61 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공간이용정도가 2.63 ± 0.96 으로 제일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3. 시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설 적응정도의 차이

시설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적응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적응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시설 입소 결정($F=15.201, p=.0001$), 시설입소 동기($F=14.174, p=$

$.0001$), 시설비용 유무($t=2.950, p=.004$), 시설입소 기간($F=5.949, p=.001$)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에 입소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본인이 입소를 결정한 경우가 자녀 및 며느리, 친인척이 입소를 결정한 경우보다 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15.201, p=.0001$). 입소동기의 경우는 사후 검정한 결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입소한 경우 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와의 갈등 및 기타’는 가장 적었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는 중간으로 나타났다($F=14.174, p=.0001$). 입소기간에 따른 적응 정도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입소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년 이상이 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5.949, p=.001$).

4.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시설 적응정도의 상관관계

시설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및 적응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시설 노인의 적응 정도는 자기효능감($r=.330, p<.0001$)과 시설서비스의 질($r=.210, p=.005$)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시설 노인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설 노인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기 전에 독립변수(연령, 건강상태, 시설비용 유무, 입소기간, 입소결정의 본인의지 유무,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에서 .503으로 모두 .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므로(Munro, 2000), 모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에 Ente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시설비용 유무 등의 불연속 변수들은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시설 노인의 적응 예측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722,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248로 설명력은 24.8%였다. 요양시설 노인의 시설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소결정($p=.001$)과 자기효능감($p=.010$)으로 나타났으며 입소결정($\beta=.279$)을 본인이 한 경우와 자기효능감($\beta=.211$)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소결정이 자기효능감보다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3. Differences in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Variables	Categories	n	M (SD)	t or F	p	Duncan
Gender	Male	36	3.30 (0.86)	-1.538	.126	
	Female	112	3.54 (0.75)			
Age (yr)	65-74	44	3.54 (0.86)	1.449	.231	
	75-79	51	3.61 (0.69)			
	80-84	34	3.35 (0.80)			
	≥85	19	3.24 (0.74)			
Education	≤6th grade	112	3.53 (0.77)	1.040	.355	
	7-12th grade	29	3.30 (0.82)			
	≥College	7	3.50 (0.84)			
Religion	Protestant	98	3.52 (0.82)	1.310	.272	
	Roman catholic	21	3.57 (0.56)			
	Buddhism	4	3.79 (0.77)			
	No	25	3.22 (0.77)			
Marital status	Married	9	3.31 (0.79)	-0.686	.494	
	Widowed/divorced	139	3.50 (0.78)			
Caregivers	Family	59	3.36 (0.79)	1.200	.303	
	Relative	5	3.56 (0.80)			
	Others	84	3.56 (0.77)			
Perceived health	Healthy	30	3.55 (0.90)	0.508	.603	
	Middle	57	3.53 (0.70)			
	Sick	61	3.41 (0.80)			
Decision maker of admission	Self ^a	64	3.84 (0.66)	15.201	.000	b<a, c
	Children ^b	63	3.14 (0.77)			
	Relative ^c	21	3.44 (0.73)			
Reason of admission	For comfortable life ^a	26	4.03 (0.46)	14.174	.000	d<a
	No caregivers ^b	60	3.60 (0.76)			
	Too sick ^c	51	3.27 (0.74)			
	Conflict with children ^d	11	2.55 (0.54)			
Type of payment	Free	101	3.61 (0.73)	2.950	.004	
	Private	47	3.02 (0.83)			
Length of stay (yr)	<1 ^a	25	2.92 (0.81)	5.949	.001	a<d
	1-2.9 ^b	66	3.57 (0.76)			
	3-4.9 ^c	37	3.59 (0.71)			
	≥5 ^d	20	3.70 (0.68)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N=148)

Variables	Activities of daily living r (p)	Self-efficacy r (p)	Nursing home care quality r (p)
Self-efficacy	.280 (.000)		
Nursing home care quality	-.002 (.491)	.173 (.018)	
Adaptation	.091 (.135)	.330 (.000)	.210 (.005)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수명의 증가로 이에 따른 노인시설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입소 노인의 시설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문헌고찰을 통하여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된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Adaptation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N=14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715	0.656		4.135	.000
Age	-0.046	0.062	-.060	-0.742	.459
Perceived health	-0.024	0.086	-.023	-0.280	.780
Type of payment	-0.070	0.162	-.042	-0.432	.666
Length of facility stay	0.102	0.062	.139	1.639	.103
Decision maker of admission	0.439	0.127	.279	3.466	.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	-0.005	0.082	-.005	-0.057	.955
Self-efficacy	0.206	0.079	.211	2.603	.010
Nursing home care quality	0.002	0.004	.043	0.485	.629
F value (df)				5.722 (8, 140)	.000
Adj R ²				.248	

설서비스의 질이 노인의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시설 노인의 적응정도는 시설입소결정, 시설입소동기, 시설비용 유무,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시설입소 결정에서는 Shin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입소결정을 본인 스스로 한 경우 시설에서의 적응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하며 노인의 독립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소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노인들 스스로가 입소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입소 동기의 경우 안락한 노후를 위해 입소하는 경우가 시설입소 노인의 입소 동기 중에서 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노인이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입소하는 경우 요양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것을 보였으며, 자녀와의 갈등으로 입소하는 경우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인한 우울과 같은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이는 Lee (2002)의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입소경위의 강제성, 가족지지의 상실로 인해 입소하게 된 노인들이 거부감을 표현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입소시설 비용에 따른 차이를 보면 무료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유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보다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 중 유료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경우 시설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함께 비용지불을 책임지고 있는 자식 등에게 미안함과 죄의식마저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 대해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는 Choi (1992)의 연구에서처럼 무료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유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보다 시설에서의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에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유료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일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 입소기간의 경우 1년 이상 머문 노인의 적응정도가 1년 미만의 노인보다 높은 적응정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이 새로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관계를 정립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모되고, 입소 이후 첫 4주 동안 혼돈, 불면, 식욕저하, 우울, 낙담, 피로, 무기력과 눈물 흘림이 나타나며 입소 후 첫 6-8주 동안을 "혼돈"기간이라 하여, 이 시기에 특징적인 증상으로 예민함, 포기, 불면이나 위축, 불안, 염려, 식사와 수면습관의 변화, 의존성, 상실, 피로, 안절부절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들(Brooke, 1989; Lee, 2002)과 유사한 것으로 특히 입소 초기에 노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시설 노인의 적응정도와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적응정도는 자기효능감과 시설서비스의 질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기효능감과 시설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요양시설에 입소해있는 노인의 적응정도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Johnson, Stone, Altmaier와 Berdahl (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노인의 적응과 상관관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Jorn 등(2006)의 연구에서 시설의 환경서비스가 노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시설 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시설입소결정의 본인의지와 자기효능감이 24.8%의 설명력을 가지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입소결정의 경우 Shin (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입소결정을 본인이 한 경우 활동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다른 사람이 결정한 노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본인 스스로의 입소 결정이 다른 누구의 결정보다도 시설에서 적응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입소 전 요양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으로 낯선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Lee (2002)의 연구에서도 노인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입소한 후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부적응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이 시설에 단기간 머무르며 시설생활을 체험해 보며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노인의 입소결정을 긍정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설 적응정도가 높은 것은 Lee, S. K. (2007)의 연구에서 시설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Glenn (2002)은 주로 걷기 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신체활동은 신체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Lee, & Lee, 2002). 비록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걸을 수 없을 지라도 chair exercise, 게임, 만들기, 그리기 등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의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또한 Brooke (1989)의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 결과 1년 이상 노인이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소노인의 적응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시설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그 밖에 요양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설 입소결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배려와 설명을 통해 적응 정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와줘야 하며, 입소동기를 명확히 구분, 확인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 직원 및 관계자들은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시설 즉 무료시설 및 정부 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인 지불 비용으로 오는 부담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입소 초기에 불안, 우울, 분노, 자살과 같은 부적응 양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간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시설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시설에서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호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시설서비스의 질 등이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서울 및 수도권의 3개 도시에 위치한 6개의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제외한 노인 148명을 일대일 면담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설 입소결정을 본인이 한 경우와 자기효능감이었고 이밖에 시설 서비스의 질이 높고 시설비용이 무료일 때와 입소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입소노인의 적응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게 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스스로 입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될 때 시설 입소 시 겪는 혼돈과 불안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시설 적응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신념 등을 갖도록 가족 및 친지들의 보살핌이 중요하며, 시설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적 혹은 사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시설노인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생활만족도, 삶의 질 및 정서 등 다른 요인을 포함하여 적응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시설입소 초기의 적응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입소 후 6개월 미만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인 편중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의

지역을 포함한 더 많은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rooke, V. (1989). How elders adjust. *Geriatric Nursing*, 10(2), 66-68.
- Choi, H. E. (2002).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paid welf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 Choi, J. S. (1992). *Comparative study on health state of the aged resident in free of charged institu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Glenn, S. (200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 nursing education: Is there a need for a more philosophical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22, 99-101.
- Haight, B. K. (1995). Suicide risk in frail elderly people relocated to nursing homes. *Geriatric Nursing*, 16, 104-107.
- Harrington, C., Mullan, J., Woodruff, L. C., Burger, S. G., Carrillo, H., & Bedney, B. (1999). Stakeholders' opinions regarding important measures of nursing home quality for consumers. *American Journal of Medical Quality*, 14, 124-132.
- Jeong, J. Y. (200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ation experience on nursing home admission of senio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 Johnson, B. D., Stone, G. L., Altmeyer, E. M., & Berdahl, L. D. (1998).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to successful nursing home adjustment. *The Gerontologist*, 38, 209-216.
- Jorn, M. H., Hong, G. P., & Lee, K. H.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s by relocation to daily activity of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 107-114.
- Kaisik, B. H., & Ceslowitz, S. B. (1996). Easing the fear of nursing home placements: The value of stress inoculation. *Geriatric Nursing*, 17, 182-186.
- Kim, S. K., Lee, S., & Lee, H. W. (2002). The difference of physical self-efficacy on sports events and various characters of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7, 104-113.
- Kim, Y. K. (2008).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ccommodated in welfare fac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National status of elder care facilities 2008*. Seoul: Author.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2007 Statistics on the aged*. Seoul: Author.

- Laughlin, A., Parsons, M., Kosloski, K. D., & Bergman-Evans, B. (2007). Predictors of mortality: Following involuntary interinstitutional reloca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3*(9), 20-26.
- Lee, G. E. (2002).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control of reluct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624-632.
- Lee, G. E. (2007). Scale development of free nursing home-adjustment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736-743.
- Lee, J. (200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observable indicators of Nursing Home Care Quality Evaluation Instru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474-482.
- Lee, S. K. (2007).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home el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Mahoney, F. I., & Barthel, D. W. (1965). Functional evaluation: The Barthel Index. *Maryland State Medical Journal, 14*, 61-65.
- Mosher-Ashley, P. M., & Lemay, E. P. (2001). Improving residents' life satisfaction. *Nursing Homes, 50*, 50-54.
- Munro, B. H. (2000). Regression. In B. H. Munro (Ed.),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care research* (pp. 246-286).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Oh, H. S. (1993).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in Korean women with arthritis.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3*, 617-630.
- Park, J. H. (2006). *A Qualitative research about institutional adaptation of the elderly person in free asylum for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Rantz, M. J., Zwygart-Stauffacher, M., Mehr, D. R., Petroski, G. F., Owen, S. V., Madsen, R. W., et al. (2006). Field testing, refine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new measure of nursing home care quality.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4*, 129-148.
- Reinardy, J. R. (1995). Relocation to a new environment: Decisional control and the move to a nursing home. *Health & Social work, 20*, 31-38.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in, S. Y. (2002). The study on the impact of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adjustment of relocation to a nursing home in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8*, 111-129.